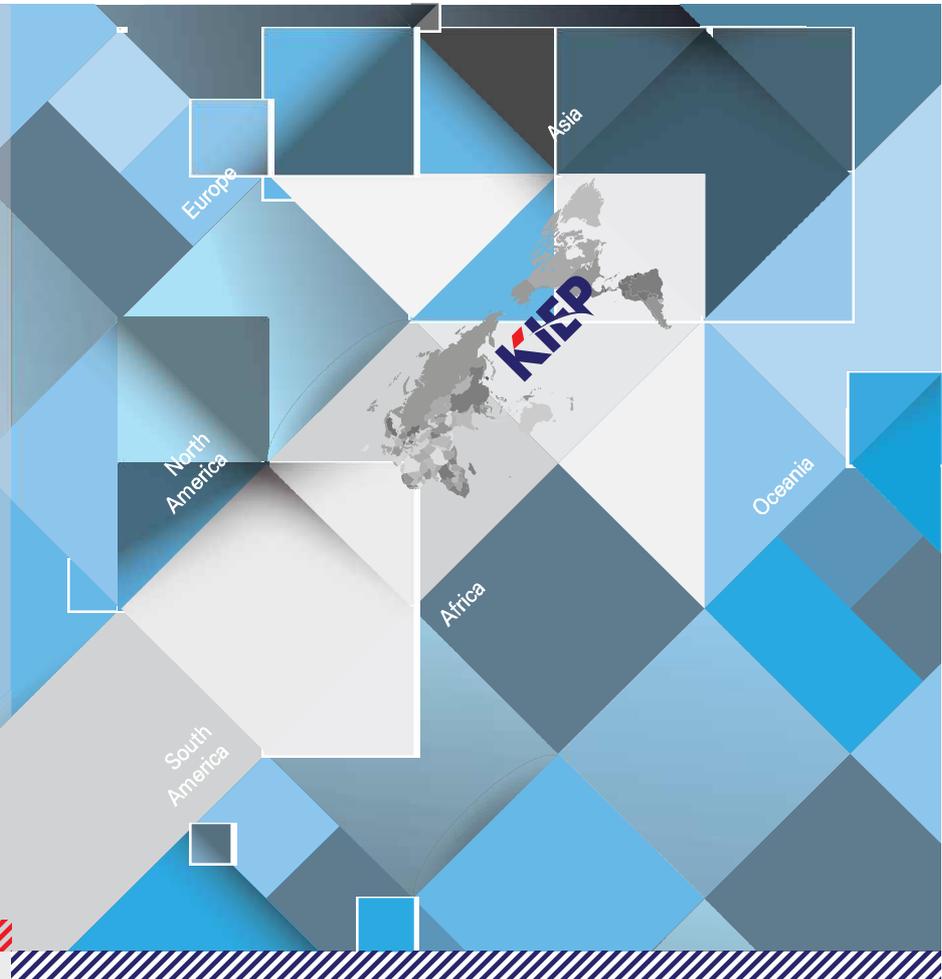




KIEP 기초자료
18-16

2018년 7월 26일



미얀마 수찌 정부의 경제개혁 2년 평가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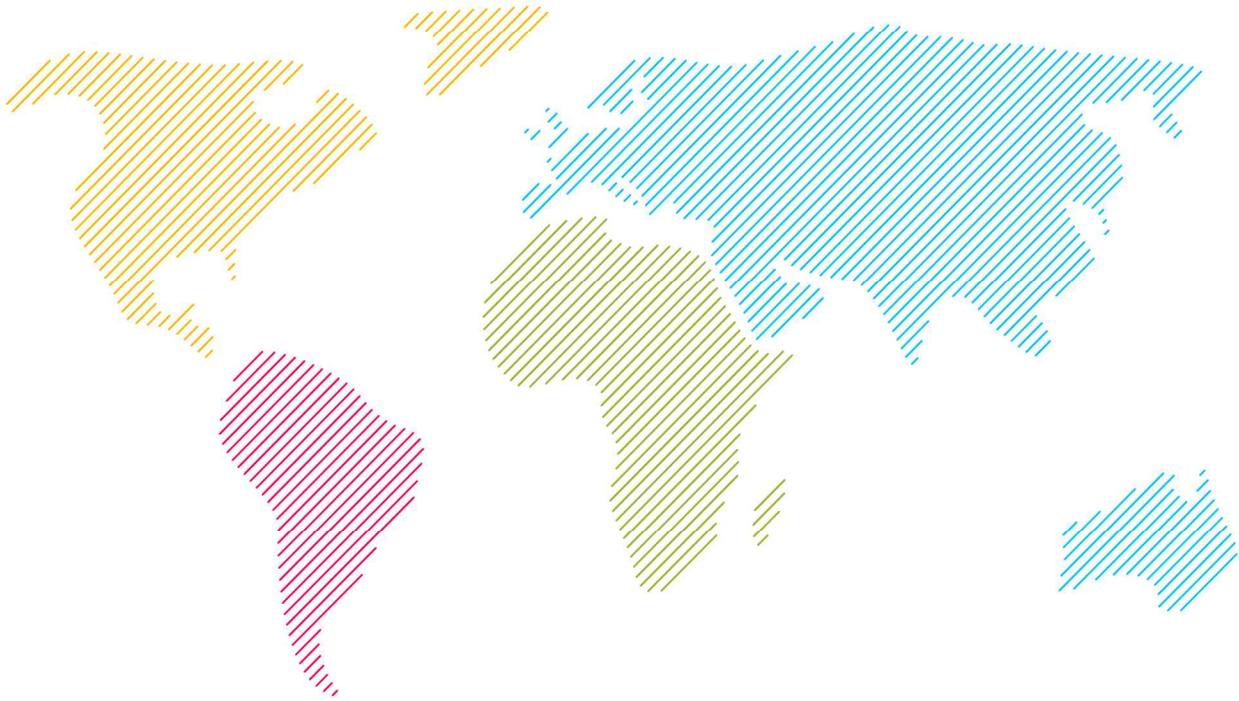
정재완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서남아대양주팀 선임연구원
(jwcheong@kiep.go.kr, Tel: 044-414-1051)

김미림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서남아대양주팀 연구원
(mlkim@kiep.go.kr, Tel: 044-414-1096)

미얀마 수찌 정부의 경제개혁 2년 평가와 전망

요약

- ▶ 수찌 정부는 그동안 부분적으로 투자환경 개선과 금융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해온 가운데 2018년 들어 '지속가능개발계획(MSDP)'과 '11대 개혁의제'를 발표함. 이는 미얀마 정부의 본격적인 경제 개혁개방 추진을 시사하고 있어 미얀마의 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이 점차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특히 MSDP와 '11대 개혁의제'는 수찌 정부의 새로운 정국운영 구상이자 경제 분야를 국정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향후 수찌 정부의 경제 개혁개방은 인프라 개선, 농업 및 농촌 개발, 수출산업 육성, 인적자원 개발, 금융 및 자본시장 개방, 국영기업 개혁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됨.
- ▶ 미얀마 경제는 수찌 정권 2년 동안 거시지표와 비즈니스 환경을 중심으로 다소 부진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지만 2018년 이후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혁 추진, 투자환경 개선에 따른 FDI 유입 지속 등에 힘입어 7%대의 높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2011년부터 시작된 미얀마의 개혁개방이 중국이나 베트남 등의 개혁 초기보다 성장도약(growth take-off)과 빈곤감축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IMF의 최근 평가가 눈에 띄나, 수찌 정부 2년까지는 그러한 성과가 다소 약화된 것으로 보임.
 - 미얀마에서 활동 중인 기업(현지+외자)들은 최근 미얀마의 향후 12개월 이내 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대해 2016년보다는 2017년에 조금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희망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 미얀마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함.
 - '한·미얀마 경제협력공동위원회'의 조속한 재개, 정부의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략 수립 및 이행, 공격적인 공적자금 확충 및 선제적 집행 등 협력여건 조성
 - 신남방정책 구현을 위한 對미얀마 협력확대 비전 및 전략 수립과 후속조치 시행
 - 중소기업 진출 지원을 위한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조기 완공
 - 수찌 정부의 개혁개방 전략과 정책을 활용한 협력 및 진출 전략 수립



차 례

1. 머리말
2. 수찌 정부의 경제개혁 2년 내용과 평가
 - 가. 개혁 정책 및 로드맵
 - 나.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 다. 금융 및 자본시장 개방
3. 경제개혁 2년의 성과에 대한 평가
 - 가. 주요 거시경제지표
 - 나.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 변화
 - 다. 금융 및 자본시장
4. 전망 및 한·미안마 경험 확대를 위한 과제
 - 가. 개혁 전망
 - 나. 한·미안마 경제협력 평가
 - 다. 한·미안마 경험 확대를 위한 현안과제

참고문헌

1. 머리말

■ 아시아의 마지막 미개척지(Asia's last frontier)로 주목받았던 미얀마에서 아웅산수찌(Aung San Suu Kyi) 정부가 등장한 지 2년이 경과한 가운데, 집권 1년차(2016.4~2017.3)에는 경제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남.

- 정권 수립 100일을 전후한 2016년 7월 발표한 12개의 경제개발 방향은 구체성과 실효성 등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2016년 미얀마 경제 역시 경제성장률, 무역,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등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임.

■ 집권 2년차(2017. 4~2018. 3) 들어 미얀마는 경제개혁 본격 추진, 투자환경 개선, 주요 경제지표 호전 등의 변화를 겪으며 다시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음.

- 수찌 정부는 2018년 들어 미얀마의 새로운 국정운영 철학을 담은 '미얀마 지속가능개발계획(MSDP)'과 '11대 개혁 의제'를 발표해 국정운영의 우선순위에 경제 분야를 포함하였고 이는 미얀마 경제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 모으는 계기가 됨.

- 2016년 신투자법 발효에 이어 2018년 신회사법 발효(8월 예정), 2년 6개월 만의 최저임금 인상, 금융 및 자본시장 개혁개방 지속 등으로 미얀마의 투자환경도 개선됨.

- 집권 2년차인 2017년 미얀마의 주요 경제지표는 경제성장률, 수출 등을 중심으로 호전되고 쉿(kyat)화 환율은 안정세를 보임.

■ 이에 본고에서는 집권 2년이 경과한 미얀마 수찌 정부의 경제개혁을 중간 평가함과 동시에 향후 경제개혁 방향을 전망해보고, 한국과 미얀마 간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현안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함.

- 경제 분야를 개혁 정책 및 로드맵,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 금융 및 자본시장 측면에서 평가하고, 경제개혁 성과에 대하여 각종 지표를 통해 평가하고자 함.

2. 수찌 정부의 경제개혁 2년 내용과 평가

가. 개혁 정책 및 로드맵

1) 경제개발정책의 방향 설정: 12대 발전과제

■ 수십 년간의 군부 통치로 피해를 겪어온 경제를 개발하는 것이 수찌 정부의 최우선 개혁의제였으나 수찌 정부는 예상보다 늦은 출범 4개월 만인 2016년 7월 29일 “국민화해에 기여하는 사람 중심의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비전으로 하는 경제개발정책을 발표함.

- 경제개발정책은 민족 간 분쟁 종식과 국가통합에 기여, 지역균형발전, 역량 있고 숙련된 청년세대 출현을 위한 기회 창출, 모든 시민의 참여, 혁신, 노력을 통해 발전하는 경제제도 수립 등을 목표로 삼았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12대 발전과제를 제시함(표 1 참고).

표 1. 수찌 정부의 경제개발정책 비전과 목표 및 12대 발전과제

비전	국민화해에 기여하는 사람 중심의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1. 국민화해와 국가통합에 기여 2. 지역균형발전 3. 역량 있고 숙련된 청년세대 출현을 위한 기회 창출 4. 모든 시민의 참여, 혁신, 노력을 통해 발전하는 경제제도 수립
12대 발전과제	1. 공공재정 확충 2. 국영기업 개혁 및 중소기업 지원 3. 인적자원 개발 4. 인프라 확충 5. 고용 창출 6. 농업과 경공업 간 균형발전 7. FDI 유치 등의 민간부문 발전 8. 금융개혁 9. 지속가능한 개발 10. 조세제도 개혁 11. 지재권 보호 제도 수립 12. 대외경제 참여

자료: Myanmar Information Management Unit(2016).

■ 수찌 정부의 경제개발정책은 범위가 방대한 반면 정책 실행수단, 구체적인 목표, 우선순위 등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미얀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경공업뿐만 아니라 제조업보다는 농업 발전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음.

2) 미얀마 지속가능개발계획(MSDP: Myanmar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 경제개발정책의 방향이 발표된 지 1년 6개월 만인 2018년 2월 12일 수찌 정부는 포괄적인 경제-사회 개발정책인 “미얀마 지속가능개발계획(MSDP)”을 발표함.

- MSDP는 “평화롭고 번영하며 민주적인 미얀마”를 비전으로 하며 평화 및 안정, 번영 및 협력, 사람 및 지구의 3대 기본 추진체계와 5대 목표, 28대 전략, 238개의 행동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음.
- 88페이지 분량의 MSDP는 정치,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개발계획으로 2016년 7월 발표된 12가지 개발목표보다 구체적임.
- 각 목표, 전략, 행동계획은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12대 개발목표, 확대메콩유역(GMS: Greater Mekong

Subregion) 개발계획, 아세안경제공동체(AEC) 등 역내 협력체의 목표와도 긴밀히 연관됨.¹⁾

■ 첫 번째 기본 추진체계는 '평화 및 안정'으로, 수찌 정부는 미얀마의 지속 발전 필요요소로 민족 간 항구적인 평화 달성을 들고 있으며 평화와 더불어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고자 함.

- 제1목표인 평화, 국민화해, 안보 및 굿거버넌스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연방 차원의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제2목표는 건전한 재정관리, 통화, 환율 정책 수립, 국제수지 적자 개선, 인플레이션 수준 관리를 주 내용으로 함.
- 제2목표 달성을 위해 개발재원 동원, 공공재정 관리역량 강화, 국영기업의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부전략과 행동계획(거시경제의 전반적 안정성 강화 및 관리)이 수립됨.

그림 1. 미얀마의 지속가능개발계획(MSDP) 추진체계



자료: Myanmar Union Government(2018), p. 10 참고하여 저자 작성.

■ 두 번째 기본 추진체계는 '번영 및 협력'으로, 고용 창출과 생산에 중요한 민간부문 발전을 통한 경제성장을 강조함.

- 번영 및 협력의 전략과 행동계획은 농촌진흥 등의 농업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중소기업 진흥, 투자환경 개선, 대외경제 참여, 금융서비스 개선, 인프라 구축, 경제다각화, 혁신 등도 강조함.
- 특히 번영 및 협력의 행동계획은 지역균형발전과 국민화해에 기여함을 강조함.

■ 세 번째 기본 추진체계는 '사람 및 지구'로, MSDP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적자원 개발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제4목표는 인적자원 개발과 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이를 위해 교육, 의료 등의 사회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접근성 향상, 사회 안전망 확대 및 강화, 안전식품 공급과 영양 개선을 추구함.
- 제5목표는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이용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법, 제도, 정책의 기본체계 구축, 건전한 수자원 활용,

1) Myanmar Union Government(2018), p. 10.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사용을 통한 전력 공급 확대, 도시이주 급증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도시 거버넌스 수립 등을 목표로 함.²⁾

표 2. 미얀마 지속가능개발계획(MSDP)의 주요 목표와 세부 전략

기본 추진체계	목표	세부 전략	행동계획
1. 평화·안정	1. 평화, 국민화해, 안보 및 굿거버넌스	1.1 연방 차원의 평화 공고화 및 증진	3
		1.2 지역균형발전	9
		1.3 정의와 법치의 실현	8
		1.4 선정과 제도적 성과 향상	12
		1.5 시민 참여 증진 및 민관 소통 촉진	6
	2. 경제적 안정, 거시경제관리 강화	2.1 효과적인 환율 및 국제수지 관리	9
		2.2 인플레이션 감소 및 금융안정성 유지	8
		2.3 공정하고 투명한 세제를 통한 공공재원 확충	6
		2.4 재정건전성 강화와 공공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4
		2.5 국영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	4
2. 번영·협력	3. 고용 창출, 민간주도 성장	3.1 농촌진흥과 농업발전을 기반으로 한 경제다각화	10
		3.2 광공업과 서비스 부문의 고용 창출 지원, 중소기업 진흥	9
		3.3 투자환경 개선	8
		3.4 교역부문 개혁, 역내·외 협력 강화	9
		3.5 금융서비스 접근성 및 금융시스템 강화	13
		3.6 경제 성장과 다변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12
		3.7 현대경제로의 발전을 위한 창의성 및 혁신 지원	7
3. 사람·지구	4. 인적자원 개발, 사회 발전	4.1 고등교육권 강화	9
		4.2 의료제도 강화, 특히 보편적 의료보험 제공 목표	9
		4.3 사회안전망 확대, 전 생애에 걸친 사회보장서비스 확대	15
		4.4 안전식품, 균형식단의 안정적 공급	9
		4.5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생산성 향상	5
	5. 번영을 위한 천연자원 및 환경	5.1 생물다양성 보존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	15
		5.2 기후 복원성 향상과 저탄소 성장으로의 전환	9
		5.3 안전하고 공평한 수자원 및 하수시설 이용	7
		5.4 안정적 전력 공급	8
		5.5 토지 거버넌스 정비,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산업 발전	6
		5.6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	9

자료: Myanmar Union Government(2018), pp. 5~6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이번 MSDP는 금융업 개혁, 사회안전망 구축,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비교적 구체적인 정책을 포함하고 있고,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목표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³⁾

- MSDP는 외국은행의 내국인기업에 대한 대출 허용과 내·외국은행의 통화스와프 경매시장 개설 허용을 명시하고 있어 역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미얀마의 금융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미얀마 내 외국계 은행은 소매금융과 현지기업금융 거래가 불가하고 은행 간 외환거래가 금지되어 있어 금융업 발전의 장애물로 작용해왔음.⁴⁾

2) Myanmar Union Government(2018), pp. 11~13.

3) EIU(2018c).

4) 미얀마의 영업허가를 받은 외국계 은행 13곳은 일본의 미쓰비시도쿄UFJ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미즈호은행, 싱가포르의 OCBC은행과 UOB은행(United Overseas Bank), 태국의 Bangkok Bank Public Company, 중국의 공상은행, 말레이시아의 메이은행(Malayan Banking Berhad), 호주·뉴질랜드 은행 그룹, 베트남 투자개발은행(BIDV), 한국의 신한은행, 대만의 옥산은행, 인도의 인디아스테이트은행 등임(미얀마중앙은행, 검색일: 2018. 5. 16).

- MSDP는 국영기업의 외환을 자사 계좌보다는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의료보험체계를 비롯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보편적 기초의료보험패키지 구축 관련 서비스 규정을 제정하고 3세 이상 어린이, 노령인구, 임산부, 장애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자 함.
- 기후변화 관련 정책과 예산을 통합하고 농산물 생산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변경해나가는 등 정부와 민간의 활동이 기후변화에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9가지 행동계획을 수립함.
- MSDP는 외국기업의 미얀마 투자와 기술이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강조하고 있어 미얀마의 고용 창출과 기술 발전에 중요한 해외제조기업의 미얀마 진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MSDP의 내용이 기존 정책의 반복이거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존재하며 MSDP의 방대한 범위, 수찌 정부의 잔여 임기와 역량을 고려할 때 우선순위 선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함.

- MSDP의 평화회담 추가 개최와 2015년 정전협정 비서명단체의 국민화해 과정 참여는 수찌 정부가 2년간 추진해 왔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함.
- 사법과 행정기능 개선에 대한 행동계획은 변호사 선임권 보장 등의 기초적이며 구체적인 내용보다 “사법개혁전략 개발(행동계획 1.3.6)”, “행정서비스 행동규범 강화(행동계획 1.4.1)”와 같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짐.
- 2016/17 회계연도에 국영기업 적자 보전을 위해 투입된 공적재원 규모가 3억 달러에 이르는 등 국영기업 개혁이 시급한 과제이나, MSDP의 국영기업 개혁 내용은 기초적인 단계인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국영기업 정책 수립(행동계획 2.5.1)”과 “국영기업의 표준화된 재무제표 보고(행동계획 2.5.4)”에 머물러 있음.
- MSDP의 주요 내용인 지방분권화의 경우 현재 지방정부의 역량이 중앙정부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지방정부의 공공 서비스 공급을 비롯한 지방분권화의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음.⁵⁾
- 수찌 정부의 약 2년 반의 잔여 임기와 역량을 감안할 때 정책 간 우선순위를 선정해 실행계획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⁶⁾

3) 11대 개혁의제

■ 2018년 4월 17일 윈민(Win Myint) 신임 대통령은 미얀마의 신년을 맞이하여 경제·사회 개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1대 개혁의제’를 발표함.

- 개혁의제의 주요 내용은 전력과 도로 인프라 확충, 거버넌스 개선, 농업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이며, 복지, 교육, 인권보호와 마약근절 등에 대한 내용도 개혁의제에 포함됨.
- 윈민 대통령이 인권보호를 개혁의제들 중 하나로 선정한 것은 로힝자족 사태로 촉발된 미얀마의 인권 현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5) EIU(2018b).

6) EIU(2018c).

표 3. 원민 대통령의 '11대 개혁의제'

분야	상세 내용
1 인프라	- 2021년까지 발전량을 3,000메가와트에서 6,000메가와트로 증가
	- 2021년까지 500KV라인 추가 설치로 송전능력 확대
	- 2019년까지 100마일의 신규 고속도로 건설
	- 200마일의 비포장도로 포장도로화
	- 600마일의 신규 지방국도 건설 및 1,000마일의 지방국도 포장도로화
2 거버넌스	- 2018년 7월까지 외국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29개의 교량에 대한 안정성 검사 실시
	- 2019년 1월까지 위험 교량 보수
	- 공정한 사법 집행을 위한 연방법지원협회(Union Law Support Association)와 법치센터(Rule of Law Center)의 협력 강화
3	- 개발협력 프로젝트의 예산사용 철저 관리
4	- 반부패위원회의 행동계획 수립을 통한 기능 제고
5 중소기업	- 기업 신용정보 집적기관(Credit Bureau)의 중소기업 대출절차 신속 이행(1개월 이내 승인 완료) 및 대출정보 축적
6 고용 창출	- FDI를 통한 고용 창출
7 농업	- 불법수용토지 반환
	- 2019년 4월까지 농업인들의 토지소유증명서 발급 완료
8 복지	- 농업대출 신속화 및 농업원료에 대한 세금 감면
	- 2021년까지 공무원 주택 1만 호 추가 제공
9 교육	- 공무원 임금 10~20% 인상
10 인권보호	- 고등교육 개발재원 확보(특히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접근성 강화)
	- 지역사회기구, 시민단체, 언론, 국민과의 협력 강화
11 마약	- 인권위원회의 역할 강조
	- 불법마약유통 근절을 위한 공권력 강화, 마약 관련 보상, 처벌체계 정비
	- 마약신속대응반(Rapid Response Drug Enforcement Unit) 설립 검토

자료: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President Office(검색일: 2018. 6. 14)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원민 대통령의 개혁의제는 수찌 정부가 국민화해와 국가통합뿐 아니라 경제·사회 개혁에도 힘을 쏟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선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원민 대통령은 취임 18일 만에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의 개혁의제를 발표하며 그동안 더딘 속도로 추진되었던 경제와 사회 분야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표명함.
- '11대 개혁의제'에는 인프라, 농업, 복지 분야 개혁의 구체적인 일정과 목표가 제시되어 있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내용이 담김.
- 그러나 미얀마의 장기적 발전에 필수적인 경공업 진흥책이 존재하지 않고 개혁 추진에 필요한 자원 출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계도 존재함.

나.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1) 신투자법 제정

■ 떼잉싸인 정부는 50년 이상 지속된 폐쇄적인 군부독재로 크게 후퇴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2012년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해 FDI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규제산업에 대한 투자 허가와 인센티브 수혜절차의 미분리, 부동산양도제한법, 회사법 등 외국인투자법 외의 법·제도 요건 충족 필요 등 투자 지원요소들이 여전히 존재하였음.

- 2012년 떼잉쨌인 정부는 외국인투자법 개정을 통해 세제혜택, 토지 장기임대, 명확한 투자승인절차 수립 등 외자 유치에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함.
- 이에 따라 2012/13 회계연도에 14억 1,947만 달러이던 미얀마에 대한 FDI는 2015/16 회계연도에는 94억 8,562만 달러로 증가함.⁷⁾
- 외국인투자법에 따르면 미얀마투자위원회(MIC)가 규제대상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부여해야만 세제혜택, 토지 장기 임대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외국인투자법 외에도 부동산양도제한법, MIC 통지, 회사법 등 기존 법·제도 등의 투자 장애물들이 존재하였음.⁸⁾

■ 2016년 10월 미얀마 연방의회는 외국인투자법(2012년)과 내국인투자법(2013년)을 통합한 신투자법(Myanmar Investment Law)을 가결함.

- 신투자법은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내국인대우, 절차 간소화, 투자 인센티브 부여과정 투명화 등을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자 제정됨.
- 연방의회 통과 이후 2017년 4월 효력발생을 앞두고 2017년 3월 투자신청절차 등을 기재한 규칙(Rules)이 제정되었고 외자규제와 투자촉진 업종 등을 규정한 4개의 고시(Notification)가 차례로 발표되며 법 기틀이 갖춰짐.
- 신투자법의 특징으로는 ① 규제업종의 명확화를 통한 MIC 인가 필요범위 대폭 축소 ② 세제혜택대상 업종 지정 ③ 지역별 세제혜택 다변화 ④ 인허가와 투자인센티브 부여절차 분리 ⑤ 지방분권화 ⑥ 투자자보호 및 분쟁해결메커니즘 신설 등을 꼽을 수 있음.
- 제36조와 제37조에 따르면 MIC의 권한은 일부 사업에 국한되며 규제산업을 제외하고는 별도로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2017년 4월 MIC가 발표한 “투자법에 따른 투자규제업종 통지 No.15”는 제42조의 각 항에 해당되는 총 169개의 업종을 규정하였고(a항: 9개, b항: 12개, c항: 22개, d항: 126개) 도소매업에 대한 FDI도 허용함.
- 사법절차를 밟기 전 MIC가 관리하는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분쟁이 해소될 수 있게 함.
- 구투자법에서는 MIC의 허가를 받은 기업에만 토지 장기임대 혜택이 주어졌으나, 신투자법에서는 새로운 승인절차에 따라 모든 회사에 부동산 장기임대 혜택이 주어지며, 법인소득세 면제기간은 종전에는 MIC의 허가 시 5년이었으나 지역의 개발 정도에 따라 3, 5, 7년으로 다변화됨.
- 외국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토지·건물 임차가능기간은 최대 1년이나 신투자법에 근거하여 MIC의 허가, 승인, 토지권 인가를 취득한 외국기업의 경우 최대 70년간, 경제특구법(SEZ Law)에 근거한 투자허가 취득기업은 최대 75년 간 토지 임대차권을 얻을 수 있음.
- 개발정도가 가장 낮은 제1구역의 경우 7년간 법인소득세가 면제되는 반면 개발이 가장 진전된 제3구역의 경우 3년간만 법인소득세가 면제됨.

표 4. 신투자법의 규제업종

구분		세부업종
36조	MIC의 인가 필요	a. 국가전략상 중요한 투자사업
		b. 자본집약적인 투자사업(투자액 1억 달러 이상)
		c. 환경·지역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투자사업

7) 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검색일: 2018. 6. 19).

8) 後藤洋平(2017).

구분		세부업종
41조	금지사업	d. 국유지·건물을 사용하는 투자사업
		e. 미얀마 정부가 MIC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투자사업
		a. 국가에 위험한 또는 해로운 폐기물을 운반 또는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투자사업
		b. 연구·개발 목적의 투자를 제외하고 아직 해외에서 시험 중이거나 이용, 재배, 종자 개량 승인을 받지 못한 기술, 의약품, 동식물 혹은 도구를 미얀마에 반입할 수 있는 투자사업
		c. 민족의 전통문화와 관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자사업
		d. 대중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자사업
		e.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사업
42조	제한사업	f. 적용 법률에 의해 금지된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사업
		a. 정부만이 실행하도록 허용된 투자사업
		b. 외국인투자자의 실시가 허용되지 않는 투자사업
		c. 내·외자 합작기업만 허용되는 투자사업
46조	국가안보, 경제, 환경, 국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사업의 경우 연방의회의 승인 필요	d. 관계부처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

자료: Myanmar Investment Law(2016) 참고하여 저자 작성.

■ 다만 신투자법이 여전히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고 허가를 받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 제42조의 투자제한업종이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으로 2017년 4월 발표되었으나 향후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 각 업종별 MIC의 승인 여부에 대한 확실한 예상이 어렵고, 제36조나 제46조에 따라 MIC나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음.⁹⁾

2) 신회사법 도입

■ 구회사법은 영국식민지 시기인 1914년 제정된 후 약 100여 년간 실질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법률로, 외국기업의 미얀마 투자와 사업 운영에 큰 제약으로 작용해왔음.

- 구회사법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미얀마에서 사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였지만 ‘사업’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관행 혹은 해석에 의해 법률이 집행됨.
- 구회사법은 회사의 지분 1주라도 외국자본이 소유한 경우 해당 기업을 외국기업으로 분류하므로 해당 기업은 외국 회사 영업금지업종의 사업을 할 수 없었으며, 원칙상 최종재의 수출입이 금지되고 부동산양도제한법에 따라 MIC의 허가 없이는 1년 이상의 장기 부동산 임대도 불가능하였음.

■ 구회사법을 대체하는 신회사법이 2017년 11월 연방의회 제정, 2017년 12월 대통령 서명, 2018년 8월 발효 예정인데, 이는 미얀마의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 할 수 있음.¹⁰⁾

- 신회사법은 구회사법의 영업허가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등록제로 변경하였으며 “반복되지 않는 30일 이내에 완료된 거래”를 제외한 기업의 활동을 ‘사업’으로 명문화하고 해당 사업의 등록을 의무화함.
- 신회사법이 “외국회사 혹은 외국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본을 35% 초과하여 보유한 회사”를 외국기업으로

9) 小原 綾子(2017).

10) 대통령의 승인과 법안의 시행 사이에 긴 간격이 존재하는 이유는 신회사법의 구체적인 이행을 규정할 내규, 조례, 준칙 입안과 기업의 온라인 등록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임(EIU 2017).

정의함에 따라 외자비율이 35% 이하에 머무르는 한 해당 회사는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국내 기업과 유사한 법·규제하에서 사업이 가능하게 됨.

- 특히 외자비율이 35% 이하인 기업의 경우 외국회사의 영업을 금지된 업종의 사업과 최종재의 수출입이 가능하며 MIC의 승인 없이도 1년 이상의 장기임대를 할 수 있게 됨.
- 2018년 5월 11일 미얀마 상무부는 더 나아가 5월 16일부터 도소매업의 외국인 지분 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힘.
- 미얀마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이사는 태국법인이나 싱가포르법인의 이사가 겸직하고 미얀마 현지법인은 미얀마 직원이 관리하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해 신회사법은 비공개회사의 경우 이사 중 1명을 법률에 의거한 미얀마 영주권자로 임명하거나 1년 중 183일 이상을 미얀마에 거주하도록 의무화함.¹¹⁾
- 이외에도 일인지주회사 설립, 외국기업의 지주회사 설립, 부동산양도제한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회사의 부동산 담보권 설정 및 실행이 허용되었고 종류주식발행이 가능해짐.¹²⁾
- 투자기업관리청(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은 2인 이상의 주주를 요구하는 구회사법에 근거하여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을 요구하였으나 신회사법이 일인회사 설립을 허용함에 따라 최소 이사 수가 1명으로 감소하였고 이에 외국기업의 인선을 비롯한 투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임.¹³⁾

3) 최저임금 인상

■ 2018년 4월 1일 미얀마 최저임금위원회(National Committee on the Minimum Wage)는 2013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법정최저임금을 일일 3,600짖에서 4,800짖으로 33% 인상함.

- 미얀마는 1949년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으나 실효성이 없었고 개혁개방 이후인 2013년 최저임금법을 개정한 후 2015년 9월 3,600짖의 최저임금을 최초로 발효함.
-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격년으로 최저임금을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15년 9월에서 2년이 경과한 2017년 최저임금 재검토가 이루어졌고 2018년 최저임금 인상안이 발표됨.
- 미얀마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1월 3일 4,800짖 인상안을 발표한 이후 60일간의 공개의견수렴기간을 거쳐 재계와 노동계로부터 반대의견 4,092건을 수렴하였으나, 종전의 인상안을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3월 18일 최종 발표함.¹⁴⁾
- 미얀마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노동자가 수습기간일 경우 최저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정규채용 이후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 미얀마의 최저임금이 2010년대 초반 이후 급상승하였으나 미얀마는 여전히 동남아 내 실질임금이 가장 낮은 국가이므로 노동집약적 수출 산업의 역내 경쟁력을 저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됨.

- 미얀마의 2018년 일일 최저임금은 짖화 가치의 절하에 의해 달러 기준으로는 23.8%(\$2.828 → \$3.501) 인상에 그침.

11) 堀間洋平(2017).

12) 종류주식이란 '이익의 배당, 잔여 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보통주식과 내용이 다른 주식'을 의미함(오성근 2016, p. 1).

13) 井上 淳(2017).

14) Connect(검색일: 2018. 5. 12).

- 역내 경쟁국의 임금 수준을 고려할 때 월임금 90달러 수준의 미얀마 최저임금은 섬유봉제와 식품가공 등 노동집약적 수출 산업의 역내 경쟁력을 저해하지는 않을 것임(표 5 참고).

표 5. 제조업 일반직공을 대상으로 한 동남아 주요국의 실질임금 추이 비교(일본기업)

(단위: 달러)

국가	도시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태국	방콕	472	559	578	593	528	500	583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341	398	365	391	374	438	471
필리핀	마닐라	421	440	393	350	424	385	277
베트남	하노이	169	211	233	247	268	300	287
	호찌민	192	227	274	257	369	373	337
라오스	비엔티안	118	188	191	143	198	192	172
캄보디아	프놈펜	120	119	147	157	220	198	219
미얀마	양곤	95	92	95	172	172	181	157

주: 정규 고용된 실무경력 3년 정도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며, 연간부담액(기본급, 수당, 사회보장비, 초과근무수당, 상여금 등 포함)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임. 연도별 조사대상 기업과 對달러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임금이 달라짐.

자료: JETRO 投資コスト比較(검색일: 2018. 6. 17).

4) 경제특구(SEZ) 개발

- 떼잉싸인 정부는 FDI를 유치하기 위해 전력과 물류 등을 구비한 경제특구(SEZ)를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2014년 통합 경제특구법이 제정된 이후 SEZ 개발이 본격화됨.

- 2018년 6월 기준 실제 개발되고 있는 SEZ는 일본이 주도하는 필라와(Thilawa) SEZ, 중국이 주도하는 짜옥푸(Kyauk Phyu) SEZ, 태국과 일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드웨이(Dawei) SEZ뿐임.

- 필라와 SEZ는 2012년 초 떼잉싸인 대통령의 제안에 의해 일본정부가 주도해 양곤 남부의 필라와항 부근에 2,400ha 규모의 첨단도시 및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것이며, 2017년 현재 396ha 규모의 산업단지(Class A)를 완공한 가운데 추가로 산업단지(Class B, 101ha)를 개발하고 있음.

- 일본은 2012년 12월 양해각서(MOU) 체결, 2013년 5월 3개 종합상사(미쓰비시, 스미토모, 마루베니)의 타당성조사(FS) 등의 과정을 거쳐 2015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SEZ 개발을 시작함.

- 특히 일본은 필라와 SEZ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거국적인 민관협력체제(All Japan)를 동원한 것으로 알려짐.¹⁵⁾

- 먼저 일본은 총리와 관계 장관 등에 의한 톱 세일즈를 통해 미얀마 정부에 각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사업의 형성이나 실시를 적극적으로 견인하였으며, 경험인프라전략회의와 '미얀마 관련 민관합동 TF 및 필라와 개발 TF'를 통해 정책 및 제도적으로도 필라와 SEZ 수주를 뒷받침함.

- 특히 일본정부와 JICA는 주변 인프라 정비(발전소, 송배전, 교량, 항만, 통신 등), 관련 법·제도 정비, SEZ 관련 행정기관 운영, 주민이전 등에 대해 ODA의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하였고 일본무역보험(NEXI) 등은 각종 리스크 경감을 통해 자국기업을 지원함.

15) 정재완(2017), pp. 119~120.

- 완공된 산업단지(Class A)에는 2017년 말 현재 9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한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의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인프라 투자계획의 거점 중 하나인 짜옥퓨 SEZ는 수찌 정부 출범 이후 추진 재합의가 이루어지는 성과가 있었으나, 막대한 규모의 인프라 건설비용과 채무 불이행 시 중국으로의 짜옥퓨항 소유권 이전이 우려됨에 따라 수찌 정부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음.

- 113억 달러, 4,289 에이커 규모의 짜옥퓨 SEZ 사업은 심해항구(90억 달러)와 산업단지(23억 달러) 건설 사업으로 구성됨.¹⁶⁾

- 2009년 미얀마 정부는 미얀마 최빈곤 지역 중 하나인 여카잉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대일로의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고자 하는 중국정부와 짜옥퓨 SEZ 건설에 합의함.

○ 순석유수입국이자 세계 제2대 석유소비국인 중국은 말라카 해협과 남중국해를 통하지 않는 원유 수입 루트를 확보하고자 짜옥퓨항 개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음.¹⁷⁾

- 폐잉쎄인 정부 출범 이후 투자방식에 대한 양국간 의견 불일치와 지역주민의 강한 반대로 착공이 지연되어왔으나 2017년 4월 틴조 前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짜옥퓨 SEZ 건설에 재합의함.

○ 2016년 1월 짜옥퓨 SEZ 건설사로 중국국제신탁투자공사(CITIC)그룹이 선정되었고 양국은 짜옥퓨 산업단지의 지분을 중신그룹 컨소시엄이 51%, 미얀마 정부가 49% 소유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며 2017년 10월 양국은 짜옥퓨 심해항의 지분을 중신그룹 컨소시엄이 70%, 미얀마 정부가 30% 소유하는 것에 합의함.¹⁸⁾¹⁹⁾

- 2017년 4월 양국은 짜옥퓨 SEZ 사업에 대한 환경·사회 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2018년 짜옥퓨 SEZ 건설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2018년 6월 보도에 따르면 수찌 정부는 짜옥퓨 SEZ 사업에 대하여 재검토 중임.²⁰⁾

○ 수찌 정부는 안보상의 이유로 심해항 지분의 30~50%를 보유하고자 하였으나 이 경우 미얀마의 대중부채가 27~45억 달러(2017년 미얀마 GDP의 4.2~7.0%)에 달하게 되며,²¹⁾ 특히 수찌 정부는 미얀마의 채무 불이행 선언 시 심해항의 소유권이 중국으로 이전될 것에 대하여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짐.

■ 양곤 남쪽 600km 지점에 건설될 예정인 드웨 SEZ는 미얀마와 일본 및 태국 정부가 SEZ 개발협력에 관한 의사표시양해각서(MoU)를 체결한 2015년 이후로는 뚜렷한 진전이 없음.

- 당초 미얀마 정부는 남부의 낙후된 떠닝타이(Taninthayi)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드웨시 북쪽 30km 지점이자 태국과의 국경으로부터 132km 떨어진 지역에 SEZ를 건설하고 주변에 심해항구, 중화학공업 집적지, 태국과의 연결 고속도로, 발전소, LNG터미널 등을 추가할 계획이었고, 이를 위해 2008년 태국의 건설사인 ITD사에 드웨 전체 개발권을 부여함.

○ 드웨 SEZ는 196.5km²로, 필라와 SEZ의 8.3배이자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로 계획됨.

- 드웨 개발 프로젝트가 1개의 민간회사가 감당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컸고 특히 ITD사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미얀마는 2013년 11월 태국정부와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하였으며,²²⁾ 추후 일본정부도 참여하게 됨.

16) Lee Yimou and Shwe Yee Saw Myint(2017).

17) 2016년 중국의 원유 수입은 전년대비 14% 증가하여 2010년 이후 최대로 증가하였음.

18) Su Phyo Win(2017).

19) Lee Yimou and Aung Thu Thu(2017).

20) Reed John(2018).

21) IHS Markit(검색일: 2018. 6. 18).

22) 工藤年博(2017), p. 1.

- 2015년 3국 합의에 따르면, 각국은 각각 33.3%의 지분을 보유한 가운데 일본정부는 주로 기술과 자금 면에서 협력하고 태국정부는 항만과 통신망을 포함한 인프라 개선에 주력할 예정이었음.

다. 금융 및 자본시장 개방

1) 양곤증권거래소(Yangon Stock Exchange) 개장

■ 수찌 정부는 금융 및 자본시장 개방을 통해 개발에 필요한 투자를 유치하고자 2016년 3월 미얀마 최초의 증권거래소인 양곤증권거래소(YSX)를 개장하였고 YSX의 상장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음.²³⁾

- 미얀마의 투자수요(6,500억 달러)와 인프라 투자수요(3,000억 달러)는 큰 반면 미얀마의 GDP 대비 국내신용 비중은 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²⁴⁾
- YSX는 국영은행인 미얀마경제은행(Myanmar Economic Bank), 일본의 투자은행인 다이와증권그룹(Daiwa Securities Group), 일본거래소그룹(JEG: Japan Exchange Group) 등의 협력으로 설립됨.²⁵⁾
 - 일본거래소그룹(JEG)과 다이와증권그룹이 2,400만 달러를 투자한 가운데 일본 측이 지분 49%를 소유하고 나머지 지분 51%는 미얀마경제은행이 소유함.
- 미얀마 정부는 2017년 8월 YSX 상장사의 세금을 25%에서 20%로 경감하고 상장 시 감세 혜택을 소급적용하겠다고 발표하였고²⁶⁾ 2018년 1월 YSX 온라인거래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²⁷⁾ 2018년 3월 국영기업의 YSX 상장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전담팀도 구성함.²⁸⁾
- YSX는 주식투자자의 기반을 확대하고자 지방의 잠재적인 투자자들에게 주식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2017년 3월 YSX는 산주 북동부에서 부유층을 위한 주식투자 교육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2017년 지방 도시 5곳에서도 유사한 교육을 실시함.

■ 미얀마의 증권시장은 유사한 경제발전 수준을 보이는 캄보디아, 라오스의 증권시장보다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나 성장잠재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외국기업의 YSX 거래 허용과 대기업의 추가 상장 등이 필요함.

- 2011년 개장한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증권거래소도 상장사가 적고 수와 투자 규모가 작으나 미얀마의 성장잠재력을 고려할 때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증권거래소보다 YSX의 발전가능성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표 6 참고).
- YSX 성공의 관건은 외국인투자자 유치를 위한 외국인 주식거래 허용과 외국의 투자수요가 높은 City Mart Group, Max Myanmar와 같은 대기업의 상장임.²⁹⁾
 - 신회사법 개정으로 외국인 지분이 35% 이하인 기업은 YSX를 통해 주식을 매입할 수 있으나 외국인이나 외국회사가 단독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는 없어 이에 대한 거래 허용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23) Yukako Ono and Motokazu Matsui(2016).

24) Ken Koyanagi(2017).

25) EIU(2015).

26) Yuichi Nitta(2017).

27) Yurou(2018).

28) Connect(검색일: 2018. 5. 12).

29) Motokazu Matsui(2017).

표 6.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증권거래소 개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개장연도	2011년	2010년	2015년
지원/출자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증권거래소	일본거래소그룹(JEG), 다이와증권그룹
상장기업	5개	6개	5개
시가총액	2억 9,000만 달러	13억 5,000만 달러	4억 5,000만 달러
외국인 지분상한	없음.	5~25%	0%

주: 2018년 2월 기준.

자료: 竹山 淑乃(2018), p. 1.

2) 은행권 구조개혁

■ 경제가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주요 신용공급 기관인 은행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으나, 미얀마는 낙후된 금융인프라와 기술 수준 등으로 인해 은행산업이 발전하지 못하였고 이는 경제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해왔음.

- 미얀마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민간부문에 대한 신용공급도 크게 증가하면서 주요 신용공급 기관인 은행의 중요도가 높아짐.
- 미얀마의 금융포용성(financial inclusion) 지표는 동남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외국은행에 대한 영업제한조치로 무역금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왔음(표 7 참고).
 - 국내은행 예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미얀마는 태국과 약 4배의 격차를 보이고 캄보디아보다 약 20%p 낮은 수준을 보임.³⁰⁾

표 7. 동남아 주요 비교국 금융포용성 지표(2016년)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국내은행 예금/GDP(%)	39.3	58.8	169.3
상업은행 여신/GDP(%)	22.0	69.4	114.8
성인 10만 명당 은행지점 수	3.4	6.1	12.4
성인 1,000명당 은행계좌 수	252	250	1,549

자료: World Bank DataBank(검색일: 2018. 5. 15).

■ 이에 수찌 정부는 국영은행 개혁,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은행 지분매입 허가, 외국계 은행 진입 추가 허용, 금융기관법 이행 조치 시행을 통해 은행권 구조개혁을 추진해왔음.

- 수찌 정부는 은행권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영은행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건전성 위험을 줄이고자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국영은행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실시함.
 - 군부독재 시기 미얀마 유일의 은행서비스 공급기관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국영은행은 개혁개방 이후 정보통신기술, 운영체제, 위험관리시스템의 현대화에 실패하며 민간은행의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총 은행자산에서 국영은행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³¹⁾
 - 2016년 3월 28일 제정된 금융기관법(Myanmar Financial Institutions Law)에 따라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

30) World Bank DataBank(검색일: 2018. 5. 15).

31) 2013년 3월 국영은행의 자산은 총 은행자산의 67%(15조 Kyat)를 차지하였으나 그 비중이 2014년 3월 62%(19조 Kyat), 2015년 3월 55%(19조 Kyat), 2016년 3월 46%(17조 Kyat)로 지속적으로 감소함(Roland Berger 2016, p. 7).

독권한을 보유하나 역량과 재원 부족으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4대 국영은행 중 어느 한 곳도 정확한 재무제표를 공개하고 있지 않음.

표 8. 미얀마 국영은행 현황

(단위: 백만 Kyat)

	미얀마농업개발은행	미얀마경제은행	미얀마투자산업은행	미얀마무역은행
지점 수	223	327	0	2
감독기관	없음.	미얀마중앙은행	미얀마중앙은행	미얀마중앙은행
소유기관	농업관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준거법	자사법	금융기관법	금융기관법	금융기관법
총자산	581,552	5,094,158	3,254,400	4,407,801
총부채	550,412	1,453,290	21,716	255,197

주: 1) 지점 수는 2013년 기준이며 총자산과 총부채는 2015년 3월 기준임.

2) 미얀마무역은행의 총자산에서 미결제 계정(suspense account)의 환율조정(exchange adjustment)액(약 4조 5,000억 쉐)은 제외됨.

자료: World Bank(2018), p. 3.

- 2016년 수찌 정부는 폐잉제인 정부에 이어 외국계 은행 4곳의 영업을 추가 허용하였고 2018년 3월 미얀마중앙은행은 외국계 은행 7곳의 수출금융서비스 제공을 허가함.³²⁾
- 수찌 정부는 MSDP 행동계획(2.1.7, 2.1.8)에 따라 외국계 은행의 소매금융서비스 제공을 허가하고 은행 간 외환 거래를 자유화할 예정임.³³⁾
- o 2017년 7월 미얀마중앙은행 총재는 외국계 은행의 운영점포 수 제한과 소매금융서비스 제공 금지가 이른 시일 내에 해제될 것이라 밝힘.³⁴⁾
- 2017년 7월 미얀마중앙은행은 금융기관법(FIL) 이행을 위하여 최소자기자본비율, 위험노출금액(exposure), 자산분류 및 충당금 등 유동성 요건에 관한 4가지 주요 규정을 발표함.³⁵⁾

■ 수찌 정부의 은행권 구조개혁은 유동성과 신용공급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금융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정책당국이 국영은행의 개혁 이행을 보장하고 시장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개혁조치를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수찌 정부는 외국계 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조치를 차례로 시행하였고 외국계 은행의 시장 진입이 확대됨에 따라 유동성과 신용공급 확대, 은행권의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낳은 것으로 평가됨.
- o 민간부문에 대한 신용공급은 2016/17 회계연도에 33.8%, 2017/18 회계연도에는 26.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³⁶⁾
- 국영은행 개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찌 정부와 세계은행이 발간한 국영은행 진단보고서에 따라 국영은행이 후속이행조치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행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미얀마 당국은 금융기관법 이행을 위하여 발표한 새로운 규정들을 금융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실행해야 함.

32) 2017년 2월 기준 현지은행 24곳 중 9곳이 수출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자본 제약으로 충분한 신용을 제공하고 있지 못함에 따라 외국계 은행의 수출금융서비스 제공 허가를 통해 수출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제약을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 풀이됨.

33) Chan Mya Htwe(2018).

34) Thiha(2017).

35) 각 규정의 이행 시기는 상이하였음. 유동성 요건과 위험노출금액 규제는 2017년 7월 7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최소자기자본비율, 자산분류 및 충당금 요건은 2017년 7월 7일로부터 6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나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었음. 은행들은 새로운 규제에 대한 이행계획과 자기자본 확충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할 예정임.

36) IMF(2018a), p. 3.

3) 국채시장 개혁

■ 수찌 정부는 재정건전성 강화와 자본 및 금융시장 성숙을 위하여 국고채 경매를 비롯한 국채시장 개혁을 추진해왔음.

- 2016년과 2017년 수찌 정부는 중기 부채관리전략을 발표하였고 2016년 6개월물과 12개월물 단기재정증권 경매를 시작하여 외국계 은행이 단기재정증권 경매에 참여하기 시작함.
- 과거 정부는 인플레이션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국고채 수익률을 확정·판매하여 미얀마중앙은행과 국영은행만이 국고채를 구입하였음.³⁷⁾
- 그러나 수찌 정부는 2016년 9월 20일 미얀마 최초로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경매로 국고채 수익률을 결정함.
 - 경매 결과 민간상업은행인 AYA은행, CB은행, Myawaddy은행이 1,200억 쉐(Kyat) 상당의 국고채를 매입하였으며, 미얀마 최대 국영은행인 미얀마경제은행이 나머지 800억 쉐(Kyat) 상당의 국고채를 매입함.³⁸⁾
- 2016년 9월 이후 국고채 경매는 월 1회 실시되고 있으며 단기재정증권 경매도 월 2회 실시되고 있음.

표 9. 수찌 정부의 국채시장 주요 개혁

일시	내용
2016년 5월 4일	제1차 6개월물 단기재정증권 경매
2016년 6월 15일	제1차 12개월물 단기재정증권 경매
2016년 8월 19일	“2016년 중기 부채관리전략(Medium Term Debt Strategy for 2016)” 의회 승인
2016년 9월 20일	제1차 국고채 경매
2016년 11월 2일	외국계 은행의 단기재정증권 경매 참여 시작
2017년 1월 17일	증권사의 국고채 경매 참여 시작
2017년 2월 21일	외국계 은행의 국고채 경매 참여 시작
2017년 6월 1일	“2015~16년 연간 정부부채 보고서” 의회 승인
2017년 6월 28일	“2017년 중기 부채관리 전략(Medium Term Debt Strategy for 2017)” 의회 승인

자료: Myanmar Ministry of Finance and Planning(검색일: 2018. 5. 18), p. 5.

■ 수찌 정부의 국채시장 개혁조치 중에서도 국채 경매는 재정건전성 확보와 자본 및 금융시장 성숙에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할 수 있음.

- 과거 정부는 만성적인 적자의 대부분을 중앙은행 차입으로 보전해왔으나 수찌 정부는 국채 매각을 통해 재정적자를 보전하므로 미얀마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과거 정부가 재정적자를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으로 보전해나감에 따라 중앙은행의 화폐 공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 상승과 통화가치 하락이 미얀마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잡아왔음.
 - 2017년 11월 수찌 정부는 중앙은행 차입분이 재정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16/17 회계연도 40%에서 2018/19 회계연도 20%로 낮추고 2019/20 회계연도부터는 정부지출을 중앙은행 차입으로 보전하지 않을 것이라 밝힘.³⁹⁾
- 국채는 채권시장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므로 국채 경매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회사채 등 민간채권시장 형성의 기반이 될 것임.

37) EIU(2016).

38) 연간 미얀마 정부 재정적자의 5%에 해당함.

39) Chan Mya Htwe(2017).

■ 수찌 정부의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의 금융 및 자본시장 경쟁력은 아직까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얀마의 금융 및 자본시장 경쟁력은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금융 및 자본시장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표 10. 미얀마와 동남아 주요국의 금융 및 자본시장 경쟁력 지수(2017/18년)

구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금융 및 자본시장 종합순위(137개 국가 중)	61	75	131	71	37	52	40
금융서비스 이용 가능성	75	67	138	78	33	42	23
금융서비스 구입 능력	78	47	135	60	33	43	35
국내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 조달	125	80	135	53	30	38	20
대출 용이성	74	76	140	69	33	54	31
벤처자본의 이용 가능성	65	51	139	38	19	70	27
은행 건전성	86	87	130	112	68	35	27
증권거래 관련 규정	119	99	137	89	51	36	45
법적 권리 지수	4	49	106	30	49	95	95

주: 미얀마는 2015/16 순위(140개국 중).

자료: WEF(2017)를 통해 작성.

3. 경제개혁 2년의 성과에 대한 평가

가. 주요 거시경제지표

■ 수찌 정부 기간 경제성장률은 첫해에는 5.9%로 낮아졌다가 이듬해 6.8%로 회복되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다소 안정되었으며, 對달러 환율 역시 안정세를 유지함(표 11 참고).

- 2016년 경제성장률 하락은 기후 악화와 홍수에 따른 농산물 생산수출 감소와 신정부 수립에 따른 각종 행정수속의 지연 등이 원인이며, 2017년 성장률 회복은 농산물 생산 회복에 힘입은 것으로 보임.

표 11. 미얀마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2010~17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실질 GDP(증가율, %)	10.4	5.6	7.3	8.4	8.0	7.0	5.9	6.8
명목 GDP(십억 달러)	41.4	57.9	60.9	62.2	66.3	62.6	64.6	64.5
1인당 실질 GDP(달러)	826	866	921	990	1,059	1,123	1,178	1,247
대외부채/GDP(%)	19.8	14.2	12.9	11.7	9.4	10.6	10.0	11.2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7.7	5.0	1.5	5.5	5.0	9.5	7.0	4.6
경상수지/GDP(%)	-1.1	-1.8	-4.0	-4.9	-2.2	-5.1	-3.9	-5.3
FDI 순유입액/GDP(%)	2.2	4.4	2.2	3.6	3.3	6.5	5.1	5.9
외환보유액(십억 달러)	5.7	7.0	7.0	8.6	4.2	4.4	4.6	4.1
환율(₩/\$, 연말 기준)	887.3	798.2	855.0	987.0	1,026.0	1,309.0	1,365.0	1,362.0

자료: IMF WEO database(검색일: 2018. 6. 18); IHS Markit(검색일: 2018. 6. 18).

■ 수출은 농산물 수출의 감소로 다소 줄어드는 데 반해 수입은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국별 및 품목별 교역구조는 특정국

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다소 완화되는 추세를 보임.

그림 2. 미얀마의 수출입 추이(2010~17년)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MF DOTS(검색일: 2018. 6. 19).

- 수출의 경우 폐잉제인 정부 시기인 2015년에 비해 중국과 태국의 비중이 낮아졌으며, 수입 역시 중국, 싱가포르, 일본의 비중이 낮아지고 말레이시아와 인도 등의 비중이 높아짐(표 12와 13 참고).

표 12. 미얀마의 주요 수출시장 변화(2015년과 2017년)

(단위: %, 백만 달러)

	2015			2017	
	국가	비중		국가	비중
1	중국	39.6	1	중국	38.9
2	태국	27.5	2	태국	19.4
3	인도	8.3	3	일본	6.5
4	싱가포르	5.5	4	싱가포르	5.3
5	일본	4.0	5	인도	5.1
6	홍콩	2.6	6	독일	2.6
7	한국	2.4	7	한국	2.2
8	말레이시아	1.5	8	영국	2.1
9	인도네시아	1.2	9	미국	2.0
10	아랍에미리트	0.8	10	말레이시아	1.4
상위 10개국 비중	93.5		상위 10개국 비중	85.4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6. 20).

표 13. 미얀마의 주요 수입시장 변화(2015년과 2017년)

(단위: %, 백만 달러)

	2015			2017	
	국가	비중		국가	비중
1	중국	38.0	1	중국	31.8
2	싱가포르	21.6	2	싱가포르	15.2
3	태국	11.6	3	태국	11.3
4	일본	9.1	4	일본	5.5
5	인도네시아	3.5	5	말레이시아	5.2
6	말레이시아	3.1	6	인도	5.1
7	인도	2.8	7	인도네시아	4.8
8	한국	2.4	8	미국	3.6
9	베트남	1.6	9	베트남	3.0
10	아랍에미리트	0.7	10	한국	2.8
상위 10개국 비중	94.5		상위 10개국 비중	88.1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6. 20).

- 품목별 수출구조에서도 수찌 정부 들어서는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HS 27)와 농수산물(HS 07, 10, 03, 12 등)의 비중이 각각 41%와 25.6%에서 26.7%와 21.2%로 줄어든 반면 의류(HS 62, 61)와 당류 및 설탕과자(HS 17)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표 14 참고).

표 14. 미얀마의 10대 수출품목 비교(2015년과 2017년)

(단위: %, 백만 달러)

	2015			2017		
	HS코드	품목	비중	HS코드	품목	비중
1	27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41.0	27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26.7
2	07	채소	11.0	62	의류(편물 제외)	13.9
3	10	곡물	8.2	10	곡물	9.6
4	62	의류(편물 제외)	7.5	07	채소	6.8
5	71	귀석, 반(半)귀석, 귀금속	5.7	17	당류, 설탕과자	5.9
6	99	잡품	5.0	03	어패류	4.8
7	03	어패류	4.0	61	의류(편물)	3.6
8	12	채유용 종자, 인삼	2.4	74	동과 그 제품	3.5
9	17	당류, 설탕과자	2.3	71	귀석, 반(半)귀석, 귀금속	2.8
10	74	동과 그 제품	1.9	72	철강	2.5
		기타	11.1		기타	19.9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6. 19).

- 수입의 경우 큰 변화는 없는 가운데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HS 27)와 인조 스테이플섬유(HS 55)의 비중이 높아지고 선박(HS 89)과 일반차량(HS 87)의 비중이 낮아진 것이 눈에 띈다(표 15 참고).

표 15. 미얀마의 10대 수입품목 비교(2015년과 2017년)

(단위: %, 백만 달러)

	2015			2017		
	HS코드	품목	비중	HS코드	품목	비중
1	87	일반차량	15.4	27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18.6
2	27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12.0	87	일반차량	11.5
3	84	보일러, 기계류	11.2	84	보일러, 기계류	8.8
4	89	선박	7.7	85	전기기기, TV, VTR	6.8
5	85	전기기기, TV, VTR	7.5	72	철강	4.6
6	72	철강	6.2	17	당류, 설탕과자	4.5
7	73	철강제품	4.0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3.6
8	15	동식물성유지	3.5	15	동식물성유지	3.6
9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3.1	55	인조 스테이플섬유	3.5
10	17	당류, 설탕과자	2.4	73	철강제품	2.8
		기타	27.1		기타	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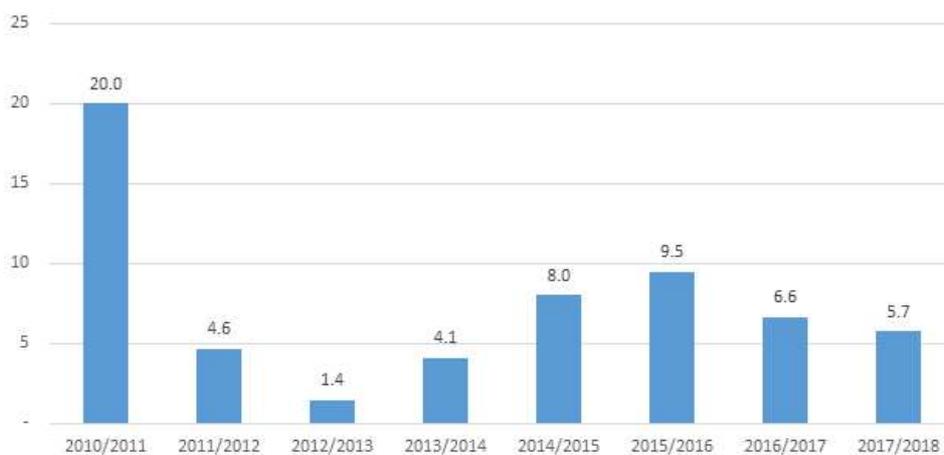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6. 19).

- FDI(허가 기준)는 때이른 정부 시기에 비해 줄어들었으나, 일부 국가 및 분야에 대한 비중은 낮아져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당초 기대와는 달리 수찌 정부의 경제에 대한 관심도 및 개혁 의지 부족, 물류를 비롯한 투자환경 미비, 로힝자족 사태 지속에 따른 국제사회의 비난 가속 등이 FDI 유치 부진의 배경으로 보임.

그림 3. 미얀마의 FDI(허가 기준) 유치 추이(2010/11~2017/18 회계연도)

(단위: 십억 달러)



자료: 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검색일: 2018. 6. 19).

- 국별로는 FDI를 주도하고 있는 싱가포르와 중국의 비중이 다소 낮아진 가운데 네덜란드, 일본, 한국, 홍콩, 미국 등의 투자가 활발해짐(표 16 참고).

표 16. 미얀마의 국별 FDI 구조 변화(2015/16 회계연도와 2017/18 회계연도)

(단위: 백만 달러, %)

	2015/16 회계연도				2017/18 회계연도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1	싱가포르	4,251.2	44.8	1	싱가포르	2,164.0	37.8
2	중국	3,323.9	35.0	2	중국	1,395.2	24.4
3	네덜란드	438.0	4.6	3	네덜란드	533.9	9.3
4	말레이시아	257.2	2.7	4	일본	384.1	6.7
5	태국	236.2	2.5	5	한국	253.9	4.4
6	홍콩	225.2	2.4	6	홍콩	252.0	4.4
7	인도	224.2	2.4	7	영국	211.2	3.7
8	일본	219.8	2.3	8	미국	128.7	2.3
9	한국	128.1	1.4	9	태국	123.9	2.2
10	영국	75.3	0.8	10	아랍에미리트	100.5	1.8
-	상위 10개국	9,379.1	98.9	-	상위 10개국	5,547.3	97.0
-	총액	9,486.1	-	-	총액	5,718.1	-

자료: 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검색일: 2018. 6. 19).

- 수찌 정부 등장 이후로는 과거 전체 FDI의 절반을 차지하던 원유 및 가스 분야에 대한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대신 제조업, 부동산업, 기타 서비스업 등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짐.

표 17. 미얀마의 업종별 FDI 구조 변화(2015/16 회계연도와 2017/18 회계연도)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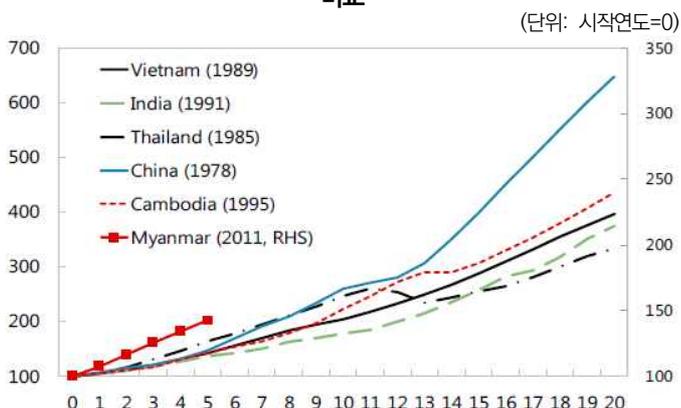
	부문	2015/16 회계연도		2017/18 회계연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제조업	1,069.8	11.3	5,718.1	30.9
2	부동산업	728.7	7.7	1,769.2	22.1
3	기타 서비스업	236.0	2.5	1,262.0	17.6
4	운수 및 통신업	1,931.0	20.4	1,005.3	15.8
5	전기 공급업	360.1	3.8	901.6	7.1
6	호텔 및 관광업	288.4	3.0	405.8	3.1
7	농업	7.2	0.1	176.8	2.4
8	산업단지	10.0	0.1	134.5	0.6
9	축산업 및 어업	8.3	0.1	34.0	0.5
10	광업	28.9	0.3	27.7	0.0
11	원유 및 가스	4,818.0	50.8	1.3	0.0
	총액	9,486.1	-	5,718.1	-

자료: 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검색일: 2018. 6. 19).

■ IMF는 2011년부터 시작된 미얀마의 경제 개혁개방에 대해 동아시아 주요 선발 개도국, 특히 중국이나 베트남 등의 개혁 초기보다 성장도약(growth take-off)과 빈곤감축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는 활발한 FDI가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⁴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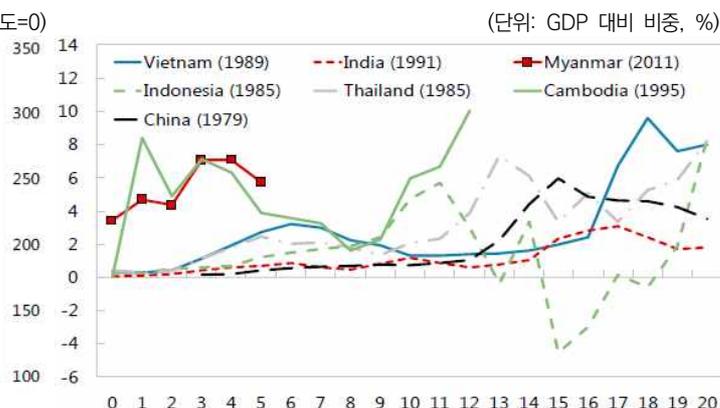
- 다만 폐잉씨인 정부에 비해 수찌 정부 들어서는 그러한 성과가 다소 약화되고 있고 추동력인 FDI 유입 역시 부진한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4. 미얀마와 주요국의 개혁개방 추진 이후 경제성장률 비교



자료: IMF(2018a), pp. 7-8.

그림 5. 미얀마와 주요국의 개혁개방 추진 이후 FDI 유입 비교



자료: IMF(2018a), pp. 7-8.

나.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 변화

■ 폐잉씨인 정부 이후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의 비즈니스 환경은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수찌 정부 수립 이후에는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임.

40) IMF(2018a), p. 7.

- 세계은행(World Bank)의 비즈니스 수월성(Ease of Doing Business) 비교를 보면, 미얀마는 2018년 현재 전 세계 190개국 중 171위에 속해 있으며, 수찌 정부 수립 직전인 2016년(2015년 실시)보다 오히려 낮아짐.
- o 수찌 정부에서 개선된 분야는 창업과 재산권 등록 분야이고 세금 납부와 국제교역은 악화됨.

표 18. 미얀마와 주요국의 비즈니스 수월성 비교(2018년)

구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2016	2018				
종합순위(190개국)	135	141	167	171	68	72	113	26
창업	183	164	160	155	123	144	173	36
건축 관련 인허가 처리	179	40	74	73	20	108	101	43
전력	137	149	148	151	64	38	31	13
재산권 등록	123	65	145	134	63	106	114	68
대출	20	77	174	177	29	55	142	42
소액투자자 보호	108	172	184	183	81	43	146	16
세금 납부	136	156	84	125	86	114	105	67
국제교역	108	124	140	163	94	112	99	57
계약분쟁 해결	179	97	187	188	66	145	149	34
청산 해결	74	168	162	164	129	38	59	26

주: 2016년은 189개국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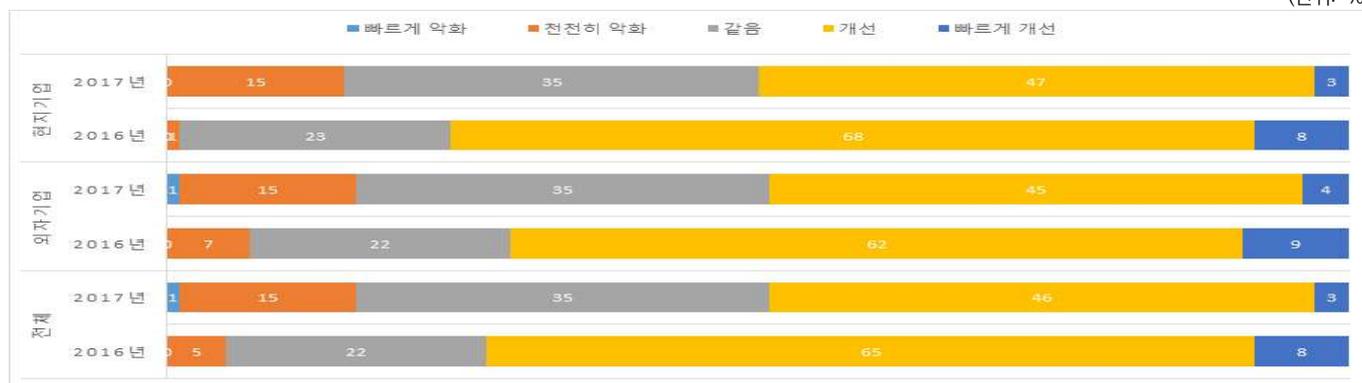
자료: World Bank(2015, 2017)를 통해 작성.

■ 현지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미얀마의 향후 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평가하였지만 개선 전망 비중은 2016년에 비해 2017년에는 낮아짐.

- Roland Berger(2017년)에 의하면, 향후 12개월 이내 미얀마 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의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많은 기업(현지 + 외자 기업)이 개선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지만 그 비중은 낮아지고 있으며, 현지기업보다는 외자기업이 조금 더 개선 전망의 비중이 낮음(그림 6 참고).
-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2016년에는 수찌 정부가 수립된 첫해이고 미국의 경제제재가 해제된 것에 큰 기대를 걸었던 데 비해 2017년에는 신정부 우선 정책에서 경제정책이 보이지 않은 데다가 로힝자족 사태의 지속으로 미얀마의 대외경제환경이 악화된 데서 비롯한 것으로 보임.

그림 6. 기업(미얀마 현지+외자)들의 향후 12개월에 대한 미얀마 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 신뢰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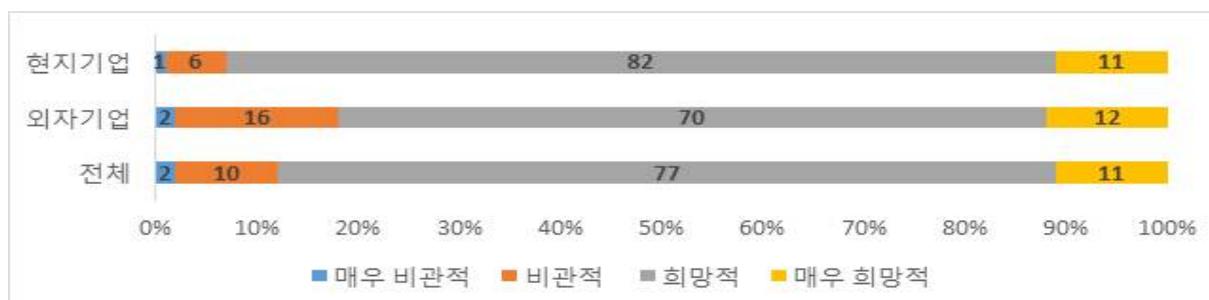


주: 미얀마연방공화국상공회의소(UMFCCI)를 통한 500여 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며, 조사는 2016년 7~8월과 2017년 7~8월에 실시됨.
자료: Roland Berger(2017), p. 3.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경제의 중장기 성장잠재력에 대해서는 현지기업과 외자기업 모두 희망적으로 평가하고 있음(그림 7 참고).

그림 7. 미얀마의 중장기 경제성장잠재력에 대한 기업(미얀마 현지+외자)들의 신뢰도

(단위: %)



주: UMFCCI를 통해 500여 개 기업에 설문조사한 결과이며, 조사는 2016년 7~8월과 2017년 7~8월에 실시함.

자료: Roland Berger(2017), p. 11.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계보다는 재계에 우호적인 결정이라고 평가되나 인상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과 정부의 지원확대 등이 필요함.⁴¹⁾

- 잿화의 대달러 환율 상승으로 미얀마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인상분의 상쇄효과가 큼.
 - 2018년 최저임금 수준은 2017년 말 양곤의 최저임금위원회가 미얀마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 최저임금 범위 (4,400~6,400껏) 중 낮은 수준에 속하고 노동계가 주장한 5,600껏보다 낮은 금액임.
- 2015년 미얀마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인원 15인 이하의 기업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2018년에는 고용인원 10인 이하의 기업에도 적용함에 따라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소규모 기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 정부의 인프라 개선, 설비투자 대출지원, 직업훈련 제공 등이 더욱 필요해짐.⁴²⁾

다. 금융 및 자본시장

1) 양곤증권거래소(Yangon Stock Exchange) 개장

■ 2016년 3월 미얀마 최초의 증권거래소인 양곤증권거래소(YSX)가 개장되었으나 5개에 불과한 상장기업, 거래량 감소, 주가 하락 등으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18년 7월 기준 YSX의 총자본액은 GDP의 1% 미만이고 상장사는 당초 예상된 10개보다 적은 5개에 불과하며, 최근 거래량이 감소 추세이고 주가도 하락세임.
 - YSX 상장사(상장일)는 First Myanmar Investment(2016. 3), Myanmar Thilawa SEZ Holdings(2016. 5), Myanmar Citizens Bank(2016. 8), First Private Bank(2017. 1), TMH Telecom(2018. 1)임.⁴³⁾

41) EIU(2018a).

42) SankeiBiz(2018).

- 2017년 YSX의 주식거래량은 220억 쯤(1,600만 달러)으로 2016년 주식거래량인 700억 쯤(5,100만 달러)의 1/3 수준에 머무름.⁴⁴⁾

■ YSX를 통한 증권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미얀마 국민들의 불신 해소, 영향력 있는 기관 투자자 유치와 대기업의 상장이 필요함.

- 군부정권의 미숙한 금융시장 관리와 50년 동안 3차례의 화폐개혁(Demonetisation)을 경험하며 국민들 사이에 금융 기관과 정부의 금융시스템 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이 형성되어 있음.
- 이에 부동산, 중고차 등의 현물이 주요 투자수단이 되어왔으며 현금 중심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일본의 생명보험사를 비롯한 소수의 기관투자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단기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적 성향의 개인투자자들임.
- YSX의 주가가 하향세를 걷자 투자가 감소하고 이에 기업들이 상장할 메리트가 더욱 줄어들게 되어 추가 상장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음.
- 미얀마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경제기업(State Economic Enterprises)과 군부소유의 국영기업은 투명성을 전제로 하는 기업공개에 꺼리는 경향이 커 이 기업들의 YSX 상장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음.⁴⁵⁾
- 두 번째 상장사인 Myanmar Thilawa SEZ Holdings는 경제특구 개발에 특화된 회사이고 Myanmar Citizens Bank와 First Private Bank는 중소 규모 은행임.

2) 은행권 구조개혁

■ 수찌 정부의 은행권 구조개혁은 해외은행이 미얀마 금융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해주었고 은행산업의 전반적 경쟁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미얀마중앙은행은 2016년 7월 베트남 투자개발은행(Bank for Investment and Development of Vietnam)의 영업을 최종 승인하였고, 이어 2016년 9월 신한은행의 영업을 최종 허가함.
- 외국계 은행의 미얀마 진출은 1962년 군사정권의 은행 국유화로 중단되었으나 1990년 금융기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1994년부터 외국계 은행의 현지사무소 설립이 다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결과 2018년 5월 16일 기준 외국계 은행의 현지지점 수는 48개에 이름.⁴⁶⁾
- 미얀마중앙은행은 2014년 9개 외국계 은행에 영업을 허가하였고 2016년 4개 외국계 은행에 영업을 추가로 허용하여 2018년 5월 16일 기준 일본계 은행 3곳, 싱가포르계 은행 2곳, 한국, 중국, 인도, 호주·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베트남계 은행 각각 1곳이 미얀마에서 영업 중임.
- 2018년 8월 신회사법 시행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은행 지분을 최대 35%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간은행은 해외은행과의 협력을 적극 모색할 수 있게 됨.
- 2018년 5월 기준 미얀마에는 23개의 민간은행이 영업 중이며 2016년 9월 기준 상위 3개 민간은행이 은행권 총자산의 36%, 총 은행점포의 54%를 차지함.⁴⁷⁾

43) Yangon Stock Exchange 홈페이지(검색일: 2018. 5. 11).

44) Yurou(2018).

45) 상장 요건은 최근 2년간의 이윤 공개, 납세 증명, 100명 이상의 주주 보유임.

46) 미얀마중앙은행(검색일: 2018. 5. 16).

47) Roland Berger(2016), pp. 9-10.

- 미얀마 최대 민영은행 Kanbawza 은행은 신회사법이 개정된다면 외국기업에 지분을 매각해 자본금을 확충할 계획이라 밝힘.⁴⁸⁾

표 19. 미얀마 은행산업 구성

(단위: 십억 샯, %)

	은행 수	지점 수	총예금	비중	총자산	비중	총부채	비중
국영은행	4	516	9,979	28	17,347	36	2,234	12
민간은행	24	1,520	23,324	66	26,889	55	16,155	86
외국계 은행	13	13	2,120	6	4,597	9	327	2
총액	-	-	35,424	-	48,834	-	18,716	-
GDP 비중(%)	-	-	44%	-	61%	-	23%	-

주: 2017년 3월 기준.

자료: 미얀마 정부, IMF(2018b), p. 4에서 재인용.

3) 국채시장 개혁

■ 국채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된 국채 경매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보이며 국채시장의 추가 발전을 위해 국가신용등급 획득과 국채 유통시장(secondary market) 형성, 채권수요 확대를 위한 달러표시 국고채 발행이 요구됨.

- 경매 결과 결정된 수익률 8.8%는 비록 인플레이션율(9.5%)보다는 낮으나 미얀마중앙은행이 고시한 최소 요구불예금금리인 8%보다 높은 수준으로, 시장에서 국고채가 수익성이 있는 자산으로 판단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수찌 정부가 인프라 확충 등 높은 개발수요를 충족하고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국고채 발행 확대가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국고채 발행 확대를 위하여 미얀마는 국가신용등급을 부여받고 국채 유통시장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
- 수찌 정부 집권 2년간 재정적자는 11조 1,000억 샯으로 페이쎈인 정부 집권 5년의 재정적자 9조 샯보다 높은 역대 최고 수준임(GDP 대비 4.5%).
- 국채 유통시장이 형성된다면 투자자들이 만기일 도래 이전 국채를 판매할 수 있으므로 미얀마 정부는 더 낮은 수익률로 국채를 매각할 수 있게 됨.
- 달러표시 국고채가 발행된다면 FDI 유입이 증가하고 은행권 외에서의 달러 유동성 공급도 확대될 수 있음.⁴⁹⁾

4. 전망 및 한미얀마 경험 확대를 위한 과제

가. 개혁 전망

■ 비록 구체성과 역량 부족 등의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찌 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속가능개발계획(MSDP)'과 '11대 개혁의제'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미얀마 경제의 개혁개방이나 비즈니스 환경 개선은 진전될 것으로 전망됨.

48) Sithu Aung(2017).

49) Yukako Ono and Motokazu Matsui(2016).

- 2018년 들어 수찌 정부는 MSDP의 5대 목표 중 4개를 경제 분야로 선정하고 '11대 개혁의제'로 인프라, 중소기업, 고용 창출, 농업 등을 삼을 정도로 경제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음.
- 신투자법과 신회사법의 발효로 미얀마의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은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최저임금 인상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아직 성숙하지 못했지만 금융 및 자본시장의 개혁과 개방 역시 진전될 것으로 보임.

■ 수찌 정부가 집권 1, 2년차와는 달리 경제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또 일련의 경제개혁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미얀마 경제는 FDI의 지속을 바탕으로 당분간 7%대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다만 미얀마 경제가 7% 이상의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개혁개방 정책의 추진, 투자환경 개선, 부족한 인프라 확충 등이 선행되어야 함.

표 20. 미얀마의 중기 경제성장 전망(2018~23년)

(단위: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IMF	6.9	7.0	-	-	-	7.5
IHS Markit	7.6	7.6	7.5	7.4	7.1	6.9

자료: IHS Markit(검색일: 2018. 6. 18), IMF(2018c, p. 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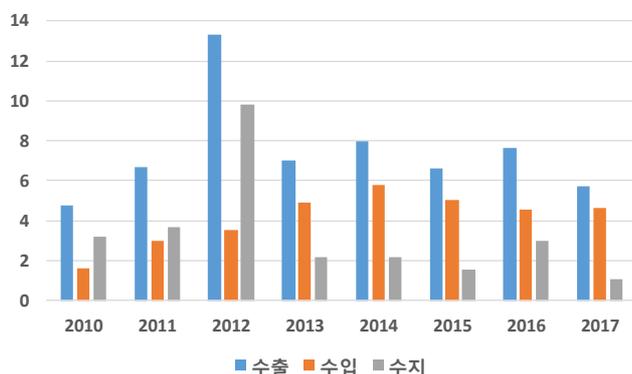
나. 한미얀마 경제협력 평가

■ 수찌 정부 등장 이후 한국은 미얀마와의 경제교류에서 ODA 지원만 증가했을 뿐 교역, 투자, 인적교류 등은 줄어들거나 제자리걸음을 함.

- 한국의 對미얀마 수출입은 폐잉쎌인 정부 시기인 2012년에 최고를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한국의 투자 역시 수찌 정부 첫해인 2016년에는 증가하였으나 2017년에는 다시 감소함(그림 8과 9 참고).

그림 8. 한국의 對미얀마 교역 추이(201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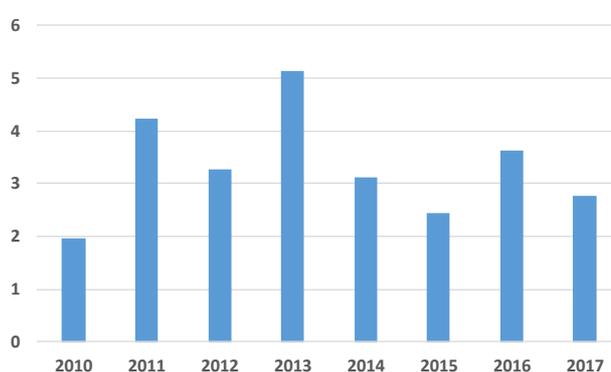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검색일: 2018. 6. 20).

그림 9. 한국의 對미얀마 투자 추이(2010~17년)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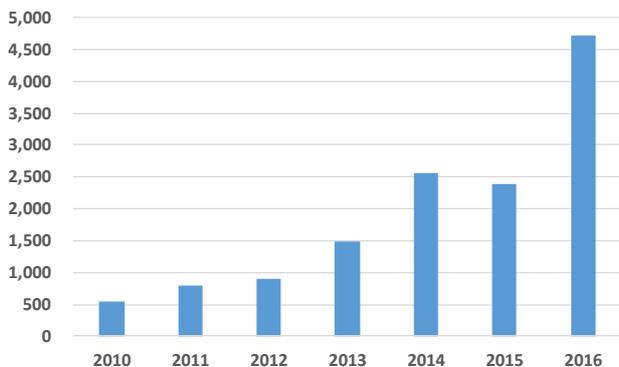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8. 6. 20).

- 미얀마에 대한 ODA 지원은 수찌 정부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미얀마에 입국하는 한국 관광객의 증가율은 2014년까지에 비해 2015년 이후로는 정체됨(그림 10과 11 참고).

그림 10. 한국의 對미얀마 ODA 공여 추이(201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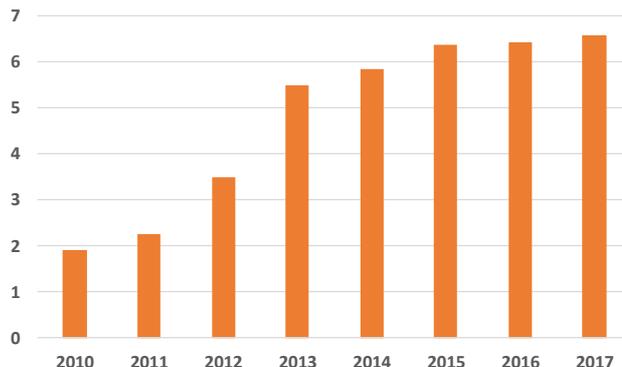
(단위: 만 달러)



주: 총지출(Gross Disbursement), 경상가격 기준임.
자료: OECD Statistics(검색일: 2018. 6. 20).

그림 11. 미얀마 방문 한국 관광객 추이(2010~17년)

(단위: 만 명)



자료: 미얀마호텔관광부(검색일: 2018. 6. 21).

■ 아시아의 마지막 미개척지로 주목받은 미얀마와 신흥시장의 대명사 격인 베트남의 경제협력에 비교하면, 한·미얀마 간 경제협력 규모는 더욱 작아보임.

- 2017년 기준 미얀마에 대한 한국의 수출은 베트남의 1/83, 수입은 1/35, 투자(2018년 3월까지의 투자 누적기준)는 1/6, ODA는 1/4(2016년 기준), 인적교류는 1/37에 불과함.

다. 한미얀마 경협 확대를 위한 현안과제

■ 성장잠재력이 크고 협력수요가 많은 미얀마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식어버린 양국간 협력분위기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함.

- 우선 2013년 설치 이후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한·미얀마 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재개할 필요가 있음.
- 2013년 이후 정부의 관심 부족이 양국간 경협 위축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중장기적 시각에서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꾸준히 집행하는 것도 중요함.
- 미얀마와 같이 성장잠재력은 크나 국가리스크(country risk)가 높은 초기 개도국에 대해서는 ODA를 포함한 공적 자금을 공격적으로 확충하고 선제적으로 집행해 기업의 진출을 선도하거나 시장선점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함.

■ 미얀마도 2017년 말 발표한 신남방정책의 한 축인 아세안의 회원국이자 성장잠재력이 크다는 점에서 조속히 신남방정책 구현을 위한 對미얀마 협력확대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후속조치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신남방정책을 발표한 후 인도네시아(2017. 11), 베트남(2018. 3), 필리핀(2018. 6), 인도(2018. 7), 싱가포르(2018. 7) 등과의 협력 확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함.

■ 중소중견 기업의 미얀마 진출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추진 중인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의 완공 시기를 앞당기는 노력이 필요함.

- 한국주택토지공사(LH) 컨소시엄과 미얀마 건설부는 양곤 북부 지역에 240ha 규모의 산업단지를 PPP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으나, 최초 사업추진 시기가 2013년 6월인 것을 감안하면 진행속도가 더딘 상황임.
- 미얀마의 투자환경 중 가장 열악한 것이 물류와 전력을 포함한 인프라 구축인바, 이를 구비한 산업단지 건설은 중소·중견 기업의 미얀마 진출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한국 정부와 기업 모두 수찌 정부의 개혁·개방 전략이나 정책을 활용한 경제협력전략이나 진출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우선 수찌 정부가 인프라 개선, 농업 및 농촌 개발, 수출산업 육성, 자원 개발과 환경보호, 인적자원 개발, 금융 및 자본시장 개방, 국영기업 개혁 등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음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임.
- 미얀마가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중소득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육성이 우선 필요하므로 해당 분야에서 미얀마의 산업화를 지원하는 전략도 필요함.
 - 단기적인 측면에서 미얀마의 유망 제조업으로는 섬유봉제, 농림수산물가공업, 자동차부품 조립가공업, 자원 활용 제조가공업, 건설 및 전자재 등을 들 수 있음.
- 이와 함께 풍부한 노동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미얀마를 베트남에 이은 대표적인 신흥시장으로 육성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함. **KIEP**

참고문헌

[국문자료]

- 오성근. 2016. 「상법상 종류주식에 관한 고찰 - 영국 회사법과 비교를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제17권 제1호. 한국증권법학회.
- 정재완. 2017. 「일본의 對미얀마 인프라개발사업 민관협력 전략 및 사례」. 『개발협력 전략연구: 미얀마 인프라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영문자료]

- Aung Hla Tun and Antoni Slodkowski. 2015. "From icon to politician: As Myanmar changes, so does Suu Kyi." Reuters. (December 14)
- Chan Mya Htwe. 2017. "Myanmar auctions treasury bonds and bills for funds to cover deficit." Myanmar Times. (November 16)
- Chan Mya Htwe. 2018. "Seven foreign banks approved to do export financing." Myanmar Times. (February 23)
- EIU. 2015. "Crucial for the YSX to overcome near-term speed bumps." (December 17)
- _____. 2016. "A big step away from debt monetisation." (September 22)
- _____. 2017. "Myanmar Companies Law: rules for the 21st century." (December 21)
- _____. 2018a. "Minimum wage is increased by more than 30%." (January 4)
- _____. 2018b. "Myanmar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the negatives." (March 12)
- _____. 2018c. "Myanmar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the positives." (March 12)
- Gilmore Steve. 2016. "Government eyes K200 billion for first Treasury bond auction." Myanmar Times. (September 20)
- IMF. 2018a. "Myanmar 2017 Article IV Consultation-Press Release; Staff Report; and Statement by the Executive Director for Myanmar." IMF Country Report No.18/90.
- IMF. 2018b. "Myanmar Selected Issues." IMF Country Report No.18/91. March 2018.
- IMF. 2018c.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8: Cyclical Upswing, Structural Change*.
- Ken Koyanagi. 2017. "Challenges faced by Asian capital markets present unique opportunities." Nikkei Asian Review. (April 27)
- Lee Yimou and Aung Thu Thu. 2017. "China to take 70 percent stake in strategic port in Myanmar - official." Reuters. (October 17)
- Lee Yimou and Shwe Yee Saw Myint. 2017. "Exclusive: China seeks up to 85 percent stake in strategic port in Myanmar." Reuters. (May 5)
- Michael Safi and agencies. 2018. "First Rohingya refugees repatriated to Myanmar despite UN safety fears." The Guardians. (April 15)
- Motokazu Matsui. 2017. "Myanmar's stock exchange struggles a year after launch." Nikkei Asian Review. (March 27)
- Myanmar Information Management Unit. 2016. "Economic Policy of the Union of Myanmar."
- Myanmar Union Government. 2018. "Myanmar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Working Draft.

(February 12)

- Reed John. 2018. "Myanmar reviews \$9bn China-backed port project on cost concerns." Financial Times. (June 3)
- Roland Berger. 2016. "Myanmar Banking Sector 2025: The Way Forward."
_____. 2017. "Myanmar Business Survey #2: Significant drop in Myanmar investor confidence - a bump in the road or a sign of more fundamental issues?"
- Sithu Aung. 2017. "KBZ Bank wants to sell some stakes to foreign investors to increase capital." Eleven. (March 15)
- Su Phyo Win. 2017. "MoU on Kyaukphyu SEZ likely in August." Myanmar Times. (August 7)
- Thiha. 2017. "CBM Restrictions on Foreign Banks to be lifted 'Soon'- Deputy Governor." Consult-Myanmar. (July 26)
- World Bank. 2015. *Doing Business 2016 Measuring Regulatory Quality and Efficiency*.
- World Bank. 2017. *Doing Business 2018 Reforming to Create Jobs*.
- World Bank. 2018. *Terms of Reference Special Diagnostic and Development of Comprehensive Restructuring Plan for Myanmar Economic Bank*. (May 17)
- World Economic Forum. 2015.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5-16*.
- World Economic Forum. 2017.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7-18*.
- Yuichi Nitta. 2017. "Myanmar tries to rekindle enthusiasm for tepid stock market." Nikkei Asian Review. (September 12)
- Yukako Ono and Motokazu Matsui. 2016. "Myanmar's financial markets are slowly opening up." Nikkei Asian Review. (September 22)
- Yurou. 2018. "Myanmar to introduce online trading system on Yangon Stock Exchange." Xinhuanet. (January 3)

[일문자료]

- 後藤洋平. 2017. 「ミャンマーで新投資法が成立、改正の背景と現状の運用」. 情報センサー 2017年4月号.
- 小原綾子. 2017. 「新投資法から読むミャンマーの最新投資環境」. Mizuho global news 2017 JUL&AUG, vol. 92 pp.27~29.
- 堀間洋平. 2017. 「新会社法が成立、旧法を大幅に見直し」. JETRO ビジネス短信. 12月14日
- 井上淳. 2017. 「ミャンマー 新会社法の成立」. SMBC Breaking News 17-15号. 12月27日
- SankeiBiz. 2018. 「ミャンマー、法定最低賃金33%引き上げ 日額約383円に」. 3月13日
- 竹山 淑乃. 2018. 「CLM (カンボジア、ラオス、ミャンマー) 諸国における株式市場の現況」. 国際通貨研究所 No. 10, p. 1.
- JETRO 投資コスト比較. <http://www.jetro.go.jp>(검색일: 2018. 6. 17).
- 工藤年博. 2017. 「ダウエイ開発再考: 道路、国境ゲート、平和」. アジ研ポリシーブリーフ, No. 95(3. 31).

[기타 자료]

- 미얀마중앙은행. <http://www.cbm.gov.mm/content/1228>(검색일: 2018. 5. 4).
- 미얀마호텔관광부. http://tourism.gov.mm/en_US/(검색일: 2018. 6. 21).
-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 <http://stat.kita.net/main.screen>(검색일: 2018. 6. 20).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s://stats.koreaexim.go.kr/odisas.html>(검색일: 2018. 6. 20).

- Connect. <https://connect.ihs.com/>(검색일: 2018. 5. 12).
- 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https://www.dica.gov.mm/en/topic/foreign-investment-country>(검색일: 2018. 6. 19).
- Freedom House. <https://freedomhouse.org/report/freedom-world/>(검색일: 2018. 6. 20).
- IHS Markit. <https://connect.ihs.com/home>(검색일: 2018. 6. 18).
- IMF DOTS. <http://data.imf.org/?sk=9D6028D4-F14A-464C-A2F2-59B2CD424B85>(검색일: 2018. 6. 20).
- IMF WEO database. <https://www.imf.org/external/pubs/ft/weo/2018/01/weodata/index.aspx>(검색일: 2018. 6. 18).
- JETRO. https://www.jetro.go.jp/world/asia/mm/invest_02.html(검색일: 2018. 5. 9).
- Myanmar Ministry of Finance and Planning. “Government Bond Market Development in Myanmar.” https://asianbondsonline.adb.org/features/abo_capacity_building_2017/documents/5_Government_Bond_Market_Development_in_Myanmar.pdf(검색일: 2018. 5. 18).
- OECD Statistics. <https://stats.oecd.org/>(검색일: 2018. 6. 20).
-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President Office. “Myanmar New Year Greetings of President U Win Myint.” <http://www.president-office.gov.mm/en/?q=briefing-room/news/2018/04/18/id-8680>(검색일: 2018. 6. 14).
- UN Comtrade. <https://comtrade.un.org/data>(검색일: 2018. 6. 19).
- Yangon Stock Exchange 홈페이지. <https://ysx-mm.com/>(검색일: 2018. 5. 11).
- World Bank DataBank. <http://databank.worldbank.org/>(검색일: 2018. 5. 15).